

제30호 2021. 05.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소비동향 분석 및 시사점

데이터센터 센터장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윤신희(지리학 박사)
shyun@gyri.re.kr

Contents

- I. 연구개요
- II. 분석개요
- III.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업종별 소비동향 분석
- IV.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동향 분석
- V.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 V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증감 정도
- V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다수의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말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는 과거 1920년 미국 대공황에 견줄 정도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는 위축되었고 모든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였고, 이것은 지역별로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형태, 지원대상 등이 모두 다른 상황이다. 고양시 역시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시민에게 2020년 7월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위기극복지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량, 지역별 소비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며, 지원금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의 정보를 토대로 시계열적, 업종별, 지역별 소비변화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고양시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고양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두 개의 유형 선불카드로 지급되었고, KB국민은행 선불카드의 경우 4월 14일부터 지급되었고 NH농협 선불카드는 4월 16일부터 지급되었다. 전체 소비동향 분석을 위해 우선 두 카드를 통합 매칭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고양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시계열적 소비 동향을 보면 두 카드 모두 지원금 지급 초기부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지급 후 2-3주 내에 급격하게 사용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총 사용량은 총액은 34,534,830,930원으로 집계되고, NH농협 선불카드는 14,559,349,591원으로 집계된다. 사용 시기를 보면 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4-6월 사용량 중 5월의 사용량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카드의 경우 4월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업종별 소비 동향을 보면 대다수가 '식생활(41%)'과 '유통 (38%)' 분야에서 79%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의료 및 미용(9%), '의생활(3%)', '레포츠/문화/취미(3%)', '교육(2%)', '자동차 (2%)', '서비스(1%)', '내구재(1%)'의 순을 보인다. 반면 '유흥', '여행', '기타(제조업)'의 경우는 1% 미만의 소비량을 보인다. 업종별 세부 소비현황을 보면 식생활의 경우 한식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 졌으며, 유통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다. 의료 및 미용의 경우 약국에서의 소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미용원, 일반 및 치과 순을 보인다. 의생활에서는 기성복과 안경점의 소비가 높았으며, 스포츠 및 문화분야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소비가 높았다. 교육분야는 문리계학원, 문방구점에서 소비가 높았고, 자동차 분야는 주유소의 소비가 가장 높았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다수 세탁소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내구재 분야는 주방 및 가정용품점, 일반 가구점에서 소비가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국민카드는 식품류제조업, 농협카드의 경우 기계류 제조업에서의 사용량이 편중되어 있으며, 주거생활의 경우 철물점에서의 소비가 가장 많았다. 여행의 경우 전체 대비 1% 미만의 소비를 보이며 그중에서도 국민카드는 기타숙박업, 농협카드는 민예/공예/토산품 업종에서 소비가 가장 높았다. 유흥분야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의 사용이 금지업종이나 노래방은 스포츠, 문화분야 오락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소비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석에서는 농협카드에서 소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금액자체가 5만원으로 절대적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생활과 식음료 분야에서의 소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용처를 보면 약국, 안경점, 세탁소, 철물점 등에서 타 업종에 비해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일상생활과 밀착된 업종이며 5만원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에서 1-2회 지출로 소비가 이루어졌음 짐작해 볼 수 있다(국민은행 건별 사용액 기준).

반면 고양시민들의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극복지원금의 가계 도움여부에 대해서 69.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고,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만족이 22.4%, 불만족이 12.1%를 보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는 70.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지원금에 대한 적정금액으로는 10만원이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만원이 24% 순을 보인다. 지원금 신청방법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25.8%), '다소 불편' (23.1%)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형태의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모바일) 신청'(30.4%), '오프라인(직접) 신청'(18.5%) 등의 순을 보인다.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불카드(기존 방법과 동일)'(38.9%), '현물 지급'(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지출 감소 분야로는 '여행/숙박/교통'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식/유통'(14.6%), '스포츠/문화/ 레저/관련용품'(12.2%), '의류/잡화'(11.9%) 등의 순을 보인다. 추가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사용 예정 분야에 대해서는 '음/식료품'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약국/의료'(12.5%), '의류/잡화'(10.2%), '요식/유통'(9.1%) 등의 순을 보인다.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을 통해 소비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제 소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을 실생활과 밀접한 식생활, 유통, 의료, 의류 등의 업종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1차 지원금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희망업종에서의 소비가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향은 첫째, 위기극복지원금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연령별 맞춤 서비스, 둘째, 지급형태의 다양화, 지원금액의 상향, 위기극복지원금 추가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 신용카드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결과와 위기극복지원금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식, 미용, 화장품, 의류업종의 경우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기극복지원금 소비량 분석을 보면 본 업종들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본 결과로 위기극복지원금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논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비지출의 혜택을 주었으며 위와 같은 일부 업종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액 증가의 혜택을 주어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부 특정화할 수는 있겠다.

본 분석은 고양시 차원의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지급에 대한 기준 및 비교 대상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및 정부 지원금 소비동향과의 비교 그리고 타 데이터(타 카드 및 서베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 차원의 재난소득지원금의 실질적인 사용처와 향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둔다.

1. 연구개요

GYRI

□ 연구배경

- 2019년 12월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다수의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말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는 과거 1920년 미국 대공황에 견줄 정도이며, 그 여파는 전례가 없을 정도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이 여파는 상당히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모든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였고, 이에 지역별로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형태, 지원대상 등이 다른 상황임. 고양시 역시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시민에게 2020년 7월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양시민의 업종별, 지역별 소비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위기극복지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량, 지역별 소비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며, 지원금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함

II. 분석개요

GYRI

□ 분석대상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2종(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데이터 샘플 수
 - KB국민카드: 2,500,000건
 - NH농협카드: 266,221건
 - 총 데이터 개수 : 2,766,221건

□ 분석대상의 기간

- KB국민카드 : 2020년 4월 14일 ~ 2020년 6월 25일
- NH농협카드 : 2020년 4월 16일 ~ 2020년 6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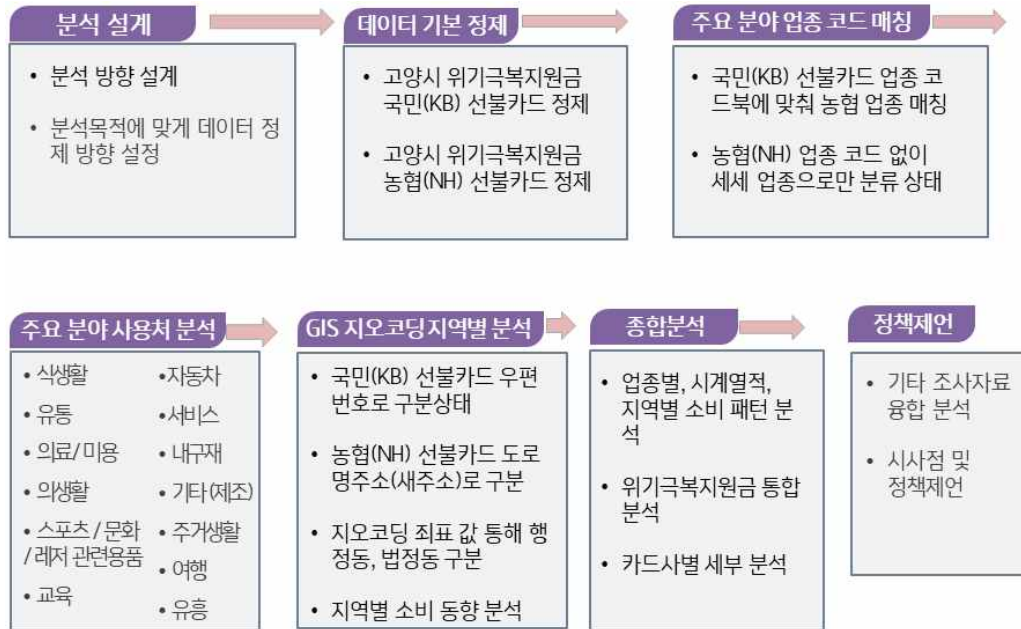
□ 분석업종

- 분석대상 카드 분류 업종 사용
 - KB국민카드: 카드 분류 업종 코드로 분류 상태
 - NH농협카드: 세세 분류 명칭으로 분류 상태
 - 따라서 KB국민은행 분류 체계 기준,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 참조하여 세부 항목 신규 작성

□ 소비금액

- 수혜신청을 받은 국민카드 및 농협카드사별 금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

□ 분석 프로세스



Ⅲ.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업종별 소비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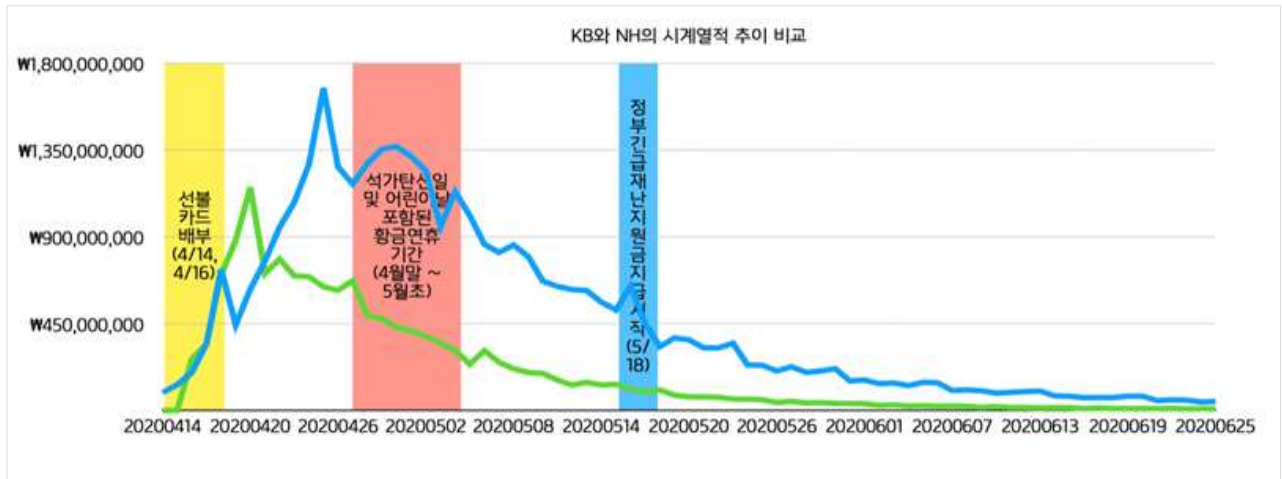
GYRI

□ 위기극복지원금 전체(국민+농협) 소비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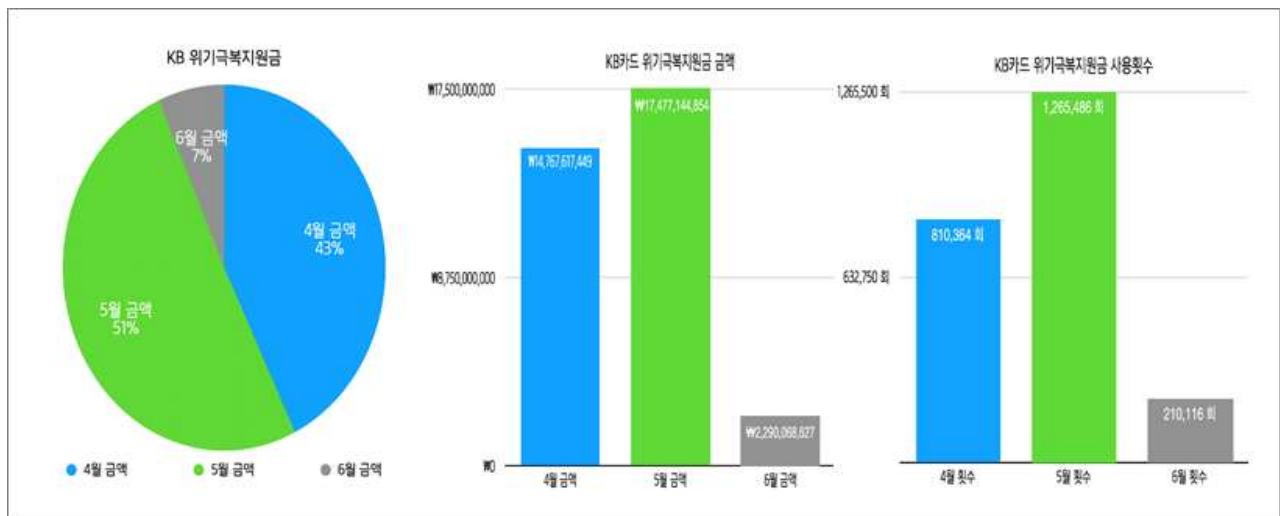
○ 시계열적 소비 동향 분석

- KB국민은행 선불카드의 경우 4월 14일부터 지급되었고 NH농협 선불카드는 4월 16일부터 지급되었음
- 위기극복지원금은 지급 초기부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두 선불카드 모두 지급 후 2-3주 내에 급격하게 사용되었음
- KB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총 사용량은 총액은 34,534,830,930원으로 집계되고, NH농협 선불카드는 14,559,349,591원으로 집계됨
- 사용 시기를 보면 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4-6월 사용량 중 5월의 사용량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카드의 경우 4월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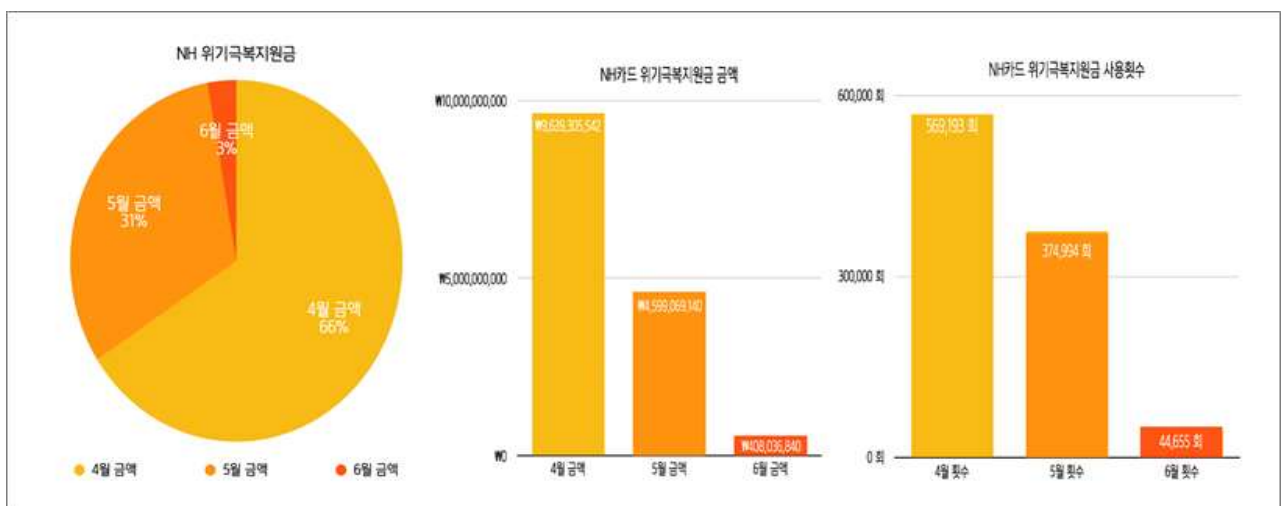
<그림 1>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시계열 사용량(국민+농협)



<그림 2> 국민은행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시계열 사용량



<그림 3> 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시계열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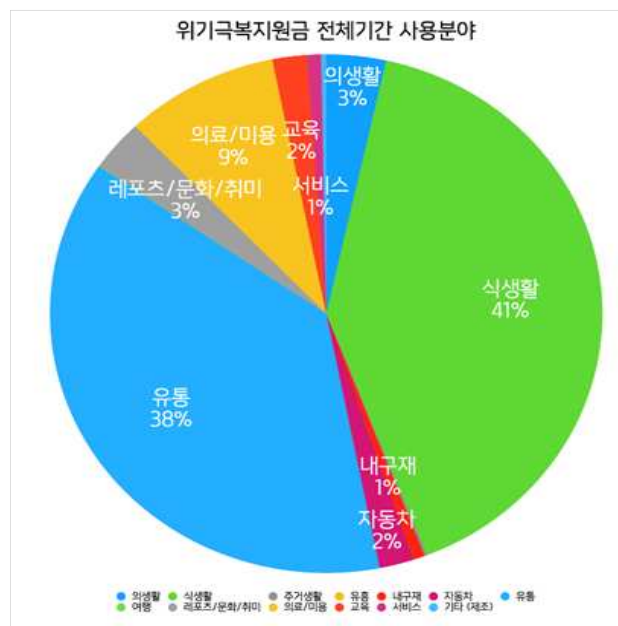


□ 전체 업종별 소비동향 분석

○ 전체 업종별 소비 동향

- 위기극복지원금은 사용 업종을 보면 대다수가 ‘식생활(41%)’과 ‘유통 (38%)’ 분야에서 79% 사용되었음
- 다음으로는 의료 및 미용(9%)’, ‘의생활(3%)’, ‘레포츠/문화/취미(3%)’, ‘교육(2%)’, ‘자동차 (2%)’, ‘서비스(1%)’, ‘내구재(1%)’의 순을 보임. ‘유희’, ‘여행’, ‘기타(제조업)’의 경우는 1% 미만의 소비량을 보임

<그림 4> 전체기간 위기극복지원금 사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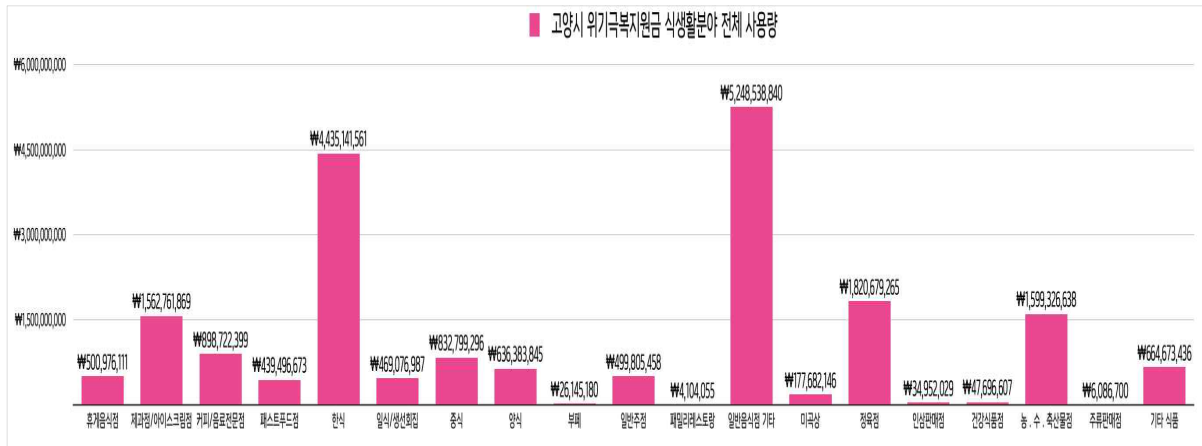


□ 세부 업종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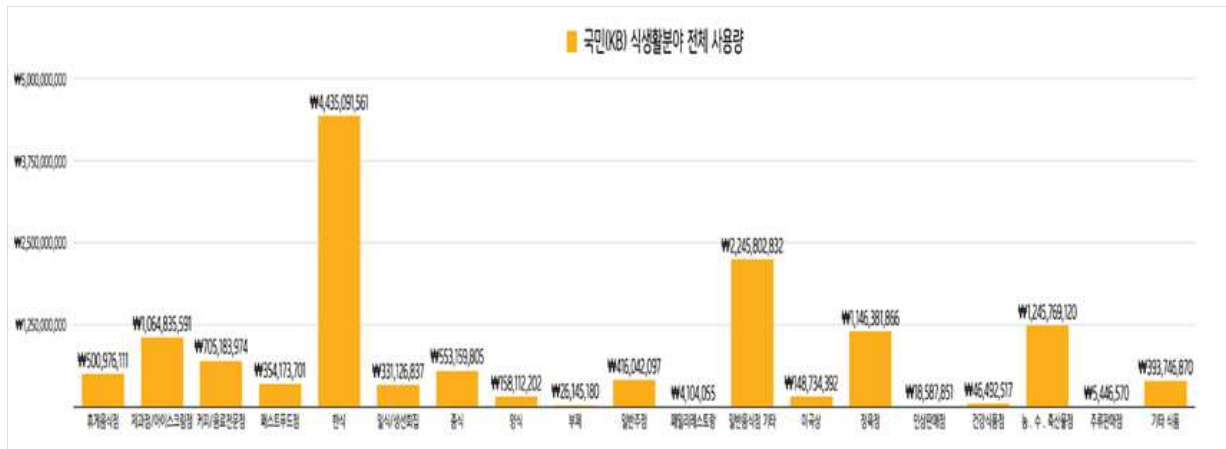
○ 식생활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식생활 분야 사용량을 보면 ‘일반음식점 기타’ 업종이 가장 많고, 한식이 다음 순으로 소비를 보임
- KB국민카드: ‘한식’에서 가장 많은 소비량 보이며, ‘일반음식점 기타’, ‘농·수·축산물점’과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을 보임
- NH농협카드: ‘일반음식점 기타’ 소분류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며,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양식’, ‘농·수·축산물점’ 순으로 소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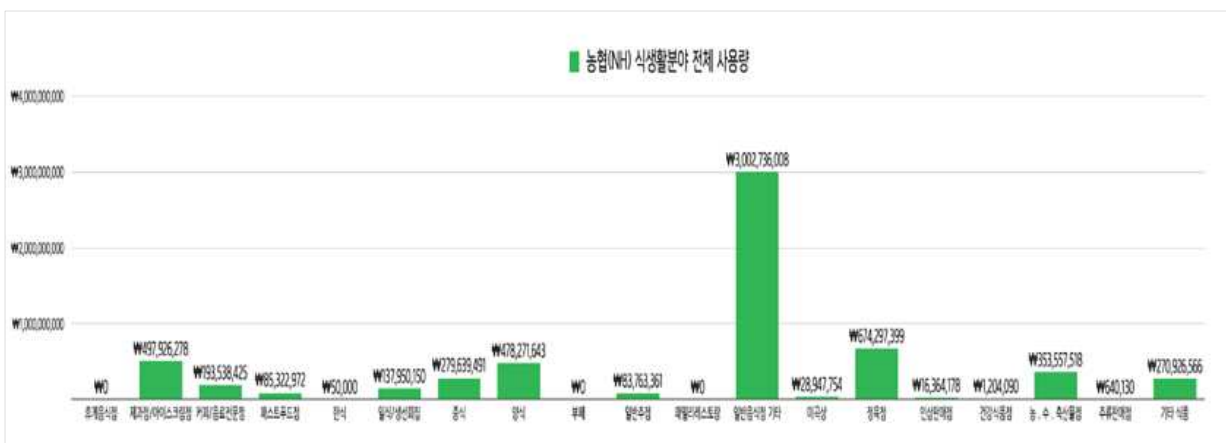
<그림 5> 전체(국민+농협) 식생활 분야 사용량



<그림 6> 국민카드 식생활 분야 사용량



<그림 7> 농협카드 식생활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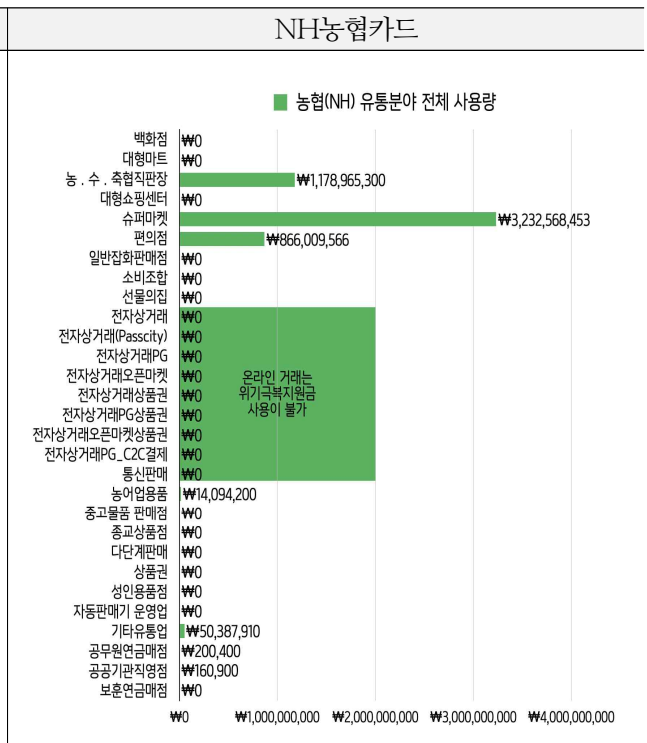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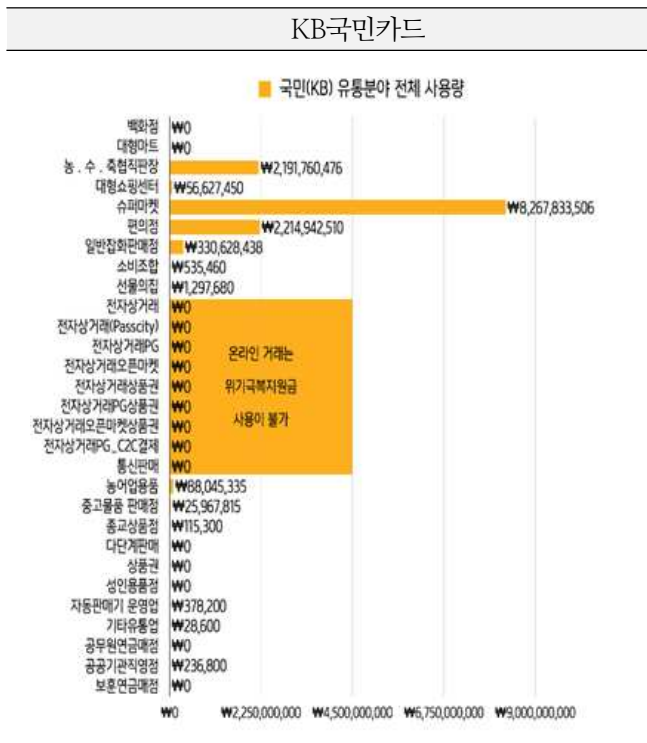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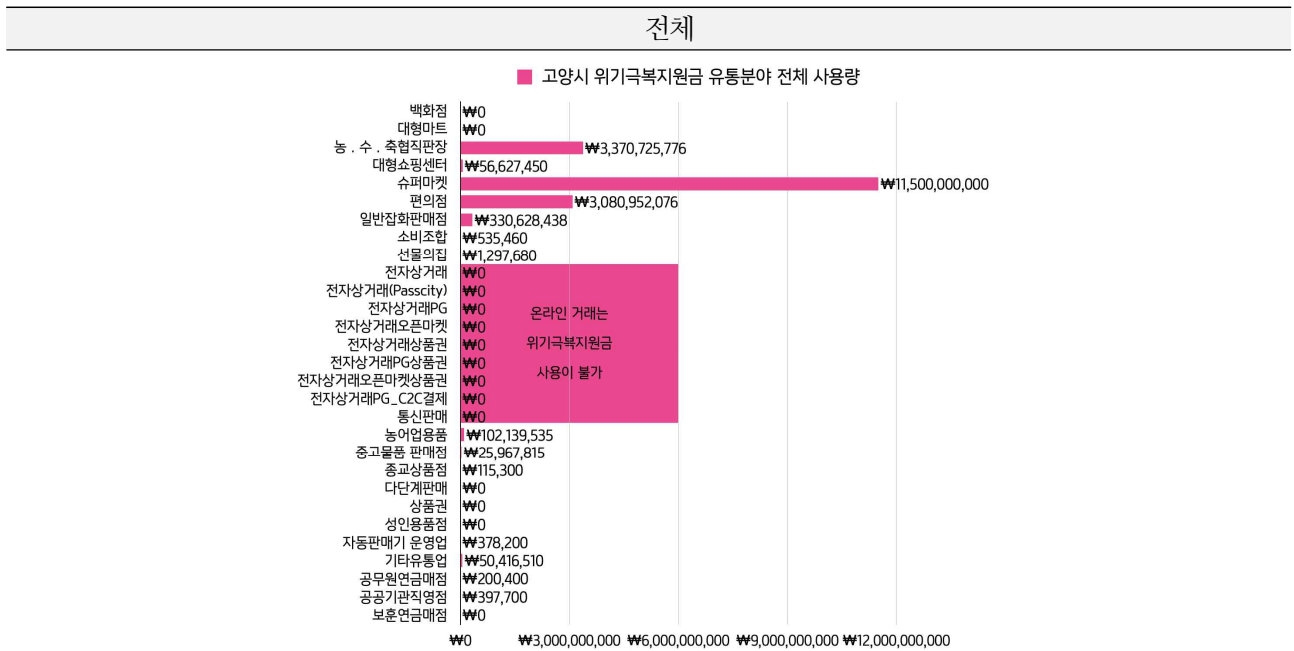


○ 유통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유통분야 소비를 보면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농·수·축협 직판장, 편의점에서 소비가 대다수 이루어졌음. 타 업종은 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 KB국민카드: '슈퍼마켓(62.7% 이상)'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됨
- NH농협카드: '슈퍼마켓'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농·수·축협직판장에서 사용됨.
- '백화점', '대형마트'는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거래 역시 사용이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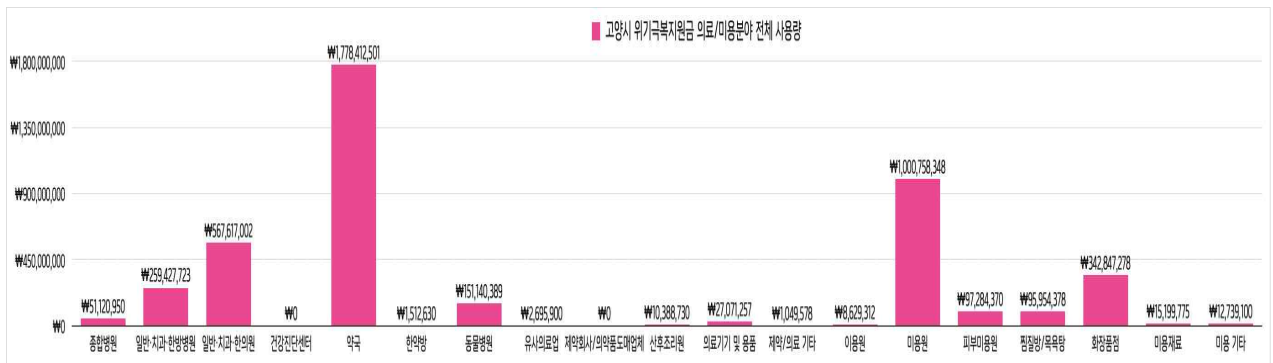
<그림 8> 유통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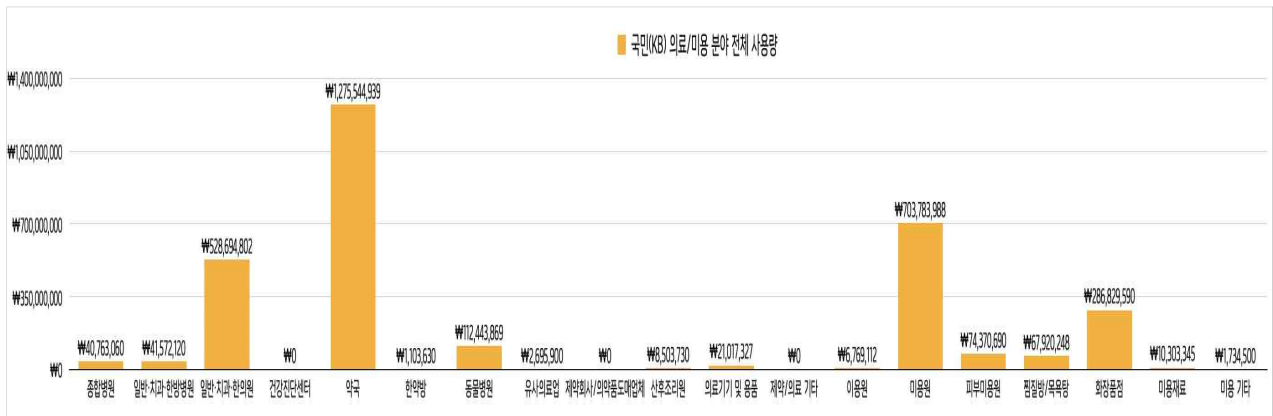
○ 의료 및 미용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약국에서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이며, 다음으로 미용원 순을 보임
- KB국민카드: '약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며, 다음으로 '미용원', '일반·치과·한의원'과 '화장품점', '동물병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짐
- NH농협카드: '약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미용원', '일반·치과·한방병원', '화장품점', '일반·치과·한의원' 순으로 소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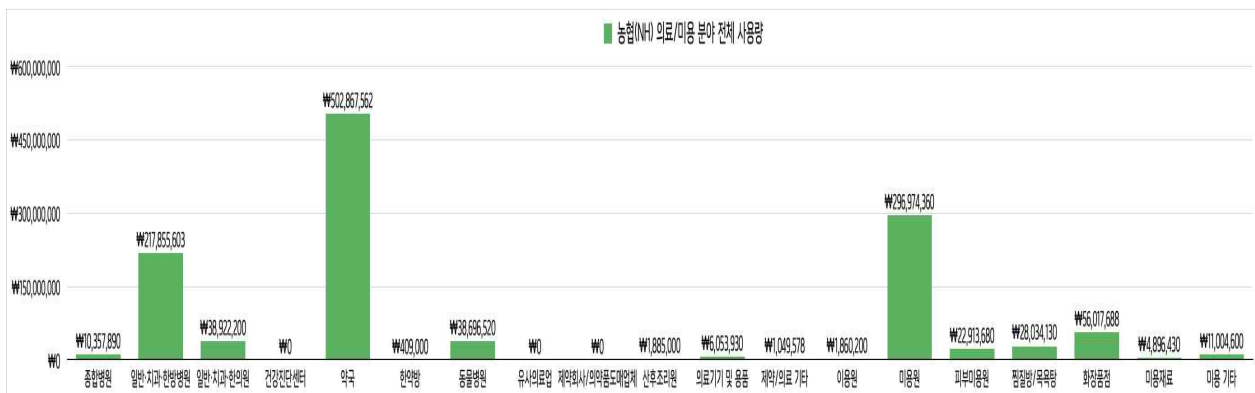
<그림 9> 전체 의료 및 미용분야 사용량



<그림 10> 국민카드 의료 및 미용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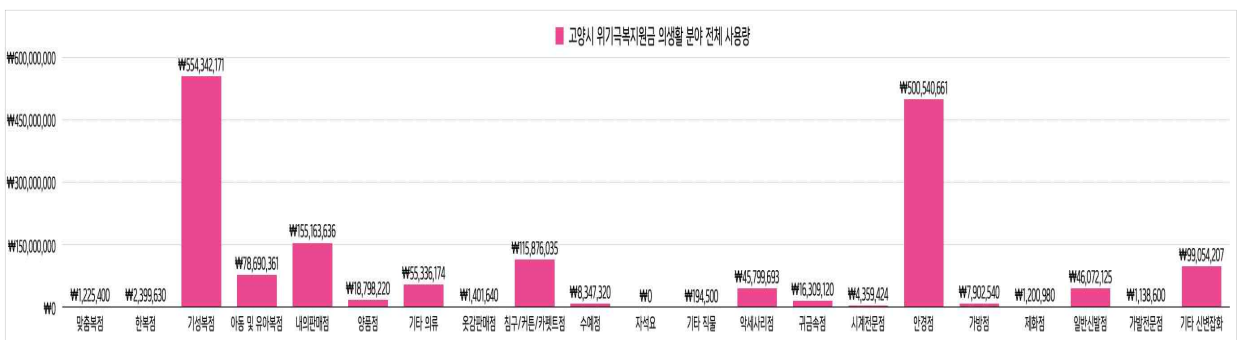
<그림 11> 농협카드 의료 및 미용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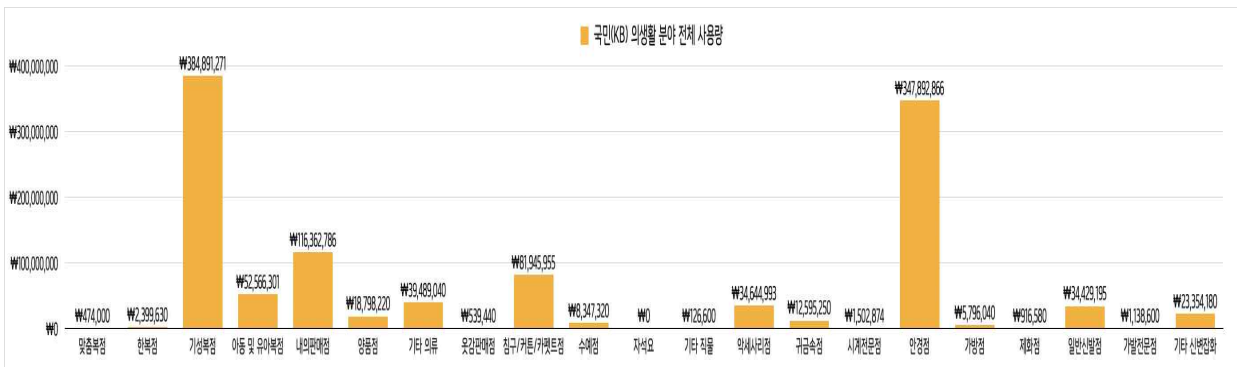
○ 의생활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기성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안경점’이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임
- KB국민카드: ‘기성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안경점’이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임. ‘내의판매점’과 ‘침구/커튼/카펫점’, ‘아동 및 유아복점’ 순으로 소비가 이루어짐
- NH농협카드: ‘기성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안경점’이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임. ‘기타 신변잡화’, ‘내의판매점’, ‘침구/커튼/카펫점’ 순으로 소비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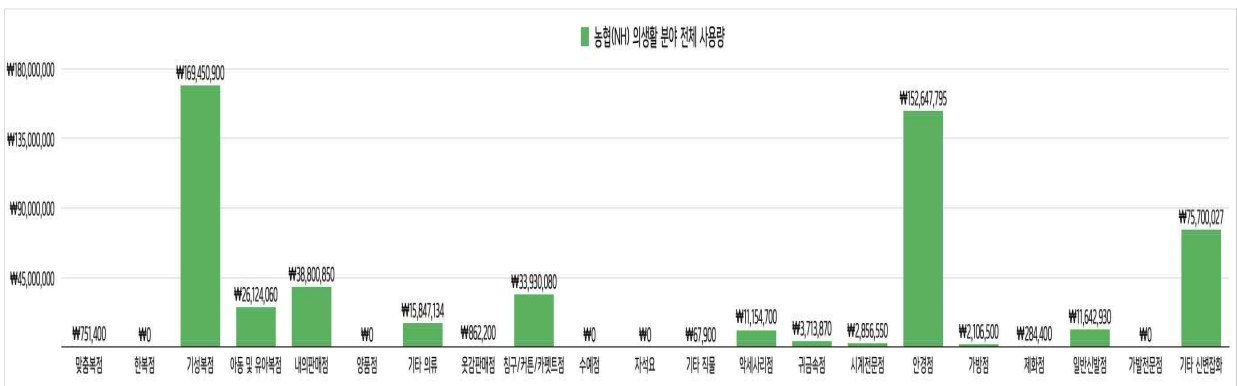
<그림 12> 전체 의생활 분야 사용량



<그림 13> 국민카드 의생활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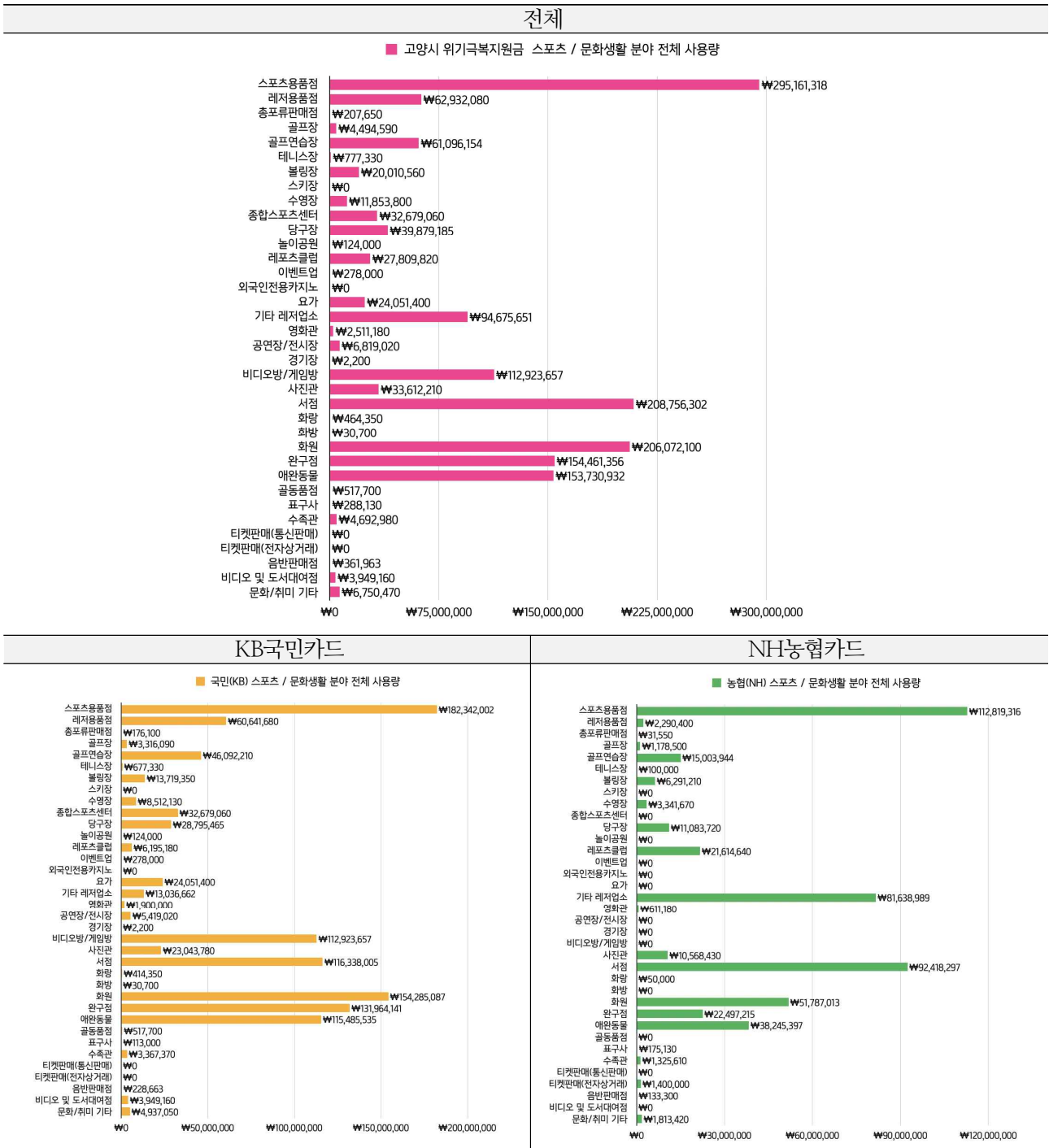
<그림 14> 농협카드 의생활 분야 사용량



○ 스포츠 및 문화생활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스포츠용품점’과 ‘서점’, ‘화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
- KB국민카드: ‘스포츠용품점’과 ‘서점’, ‘기타레저업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
- NH농협카드: ‘스포츠용품점’과 ‘화원’, ‘완구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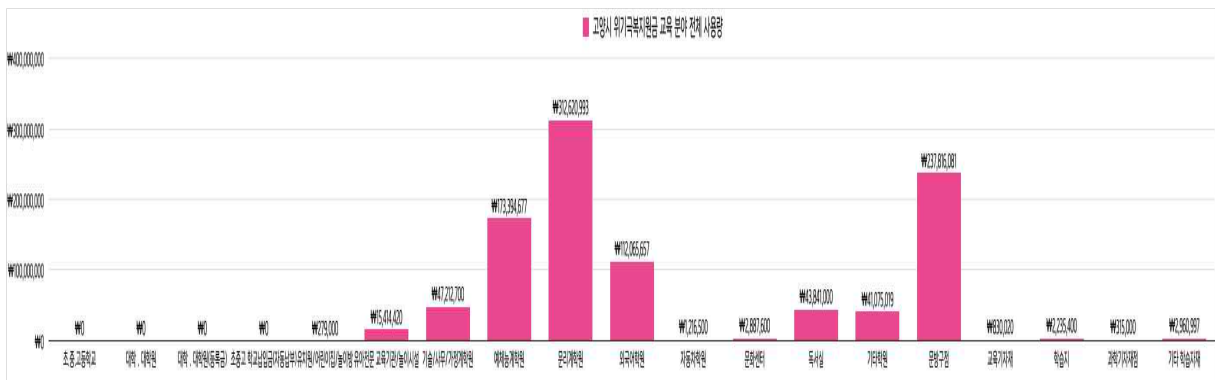
<그림 15> 스포츠 및 문화생활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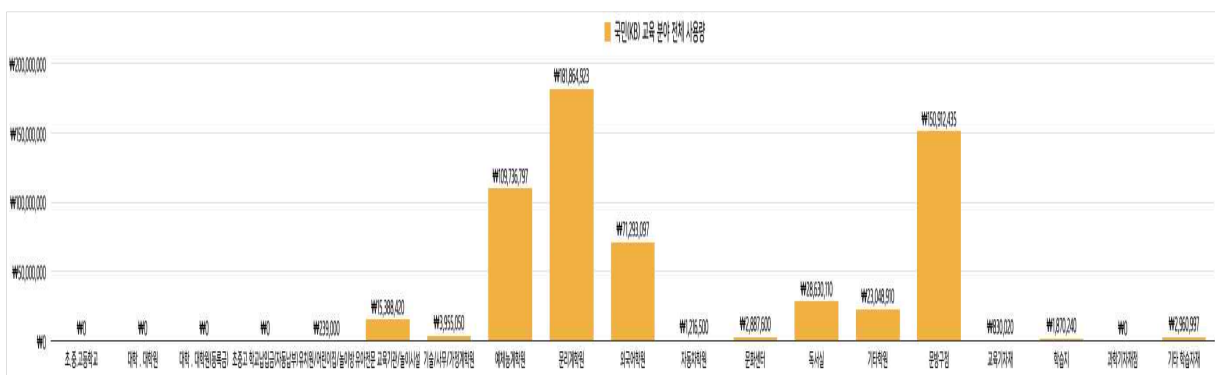
○ 교육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문리계학원’,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순으로 소비 발생함
- KB국민카드: ‘문리계학원’,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과 ‘외국어학원’, ‘독서실’ 순으로 소비
- NH농협카드: ‘문리계학원’, ‘문방구점’, ‘기술/사무/가정계학원’, ‘예체능계학원’, ‘외국어학원’ 순으로 소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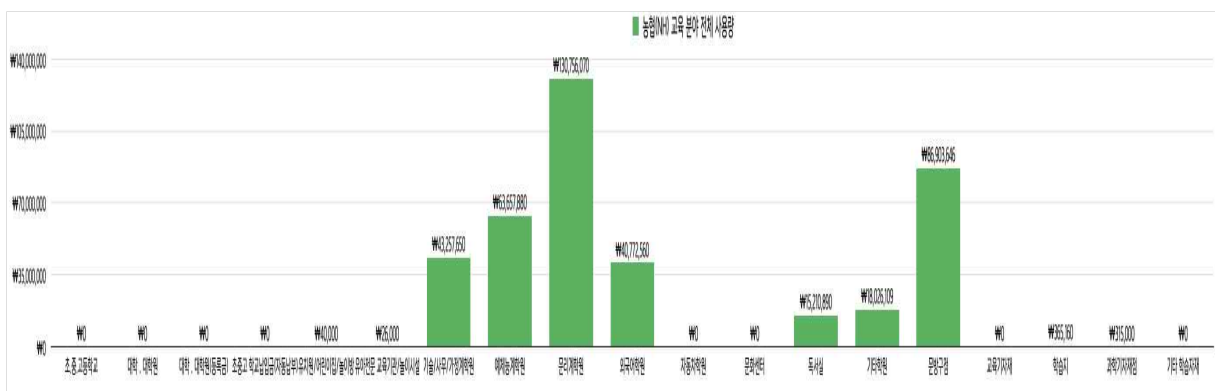
<그림 16> 전체 교육 분야 사용량



<그림 17> 국민카드 교육 분야 사용량



<그림 18> 농협카드 교육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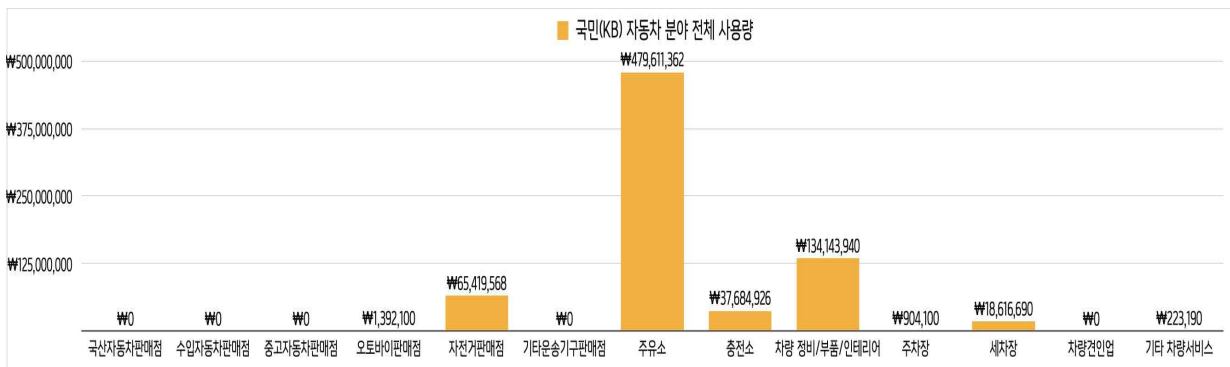
○ 자동차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주유소’,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 ‘자전거판매점’,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소비 발생함
- KB국민카드: ‘주유소’,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 ‘자전거판매점’,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소비 발생함
- NH농협카드: ‘주유소’,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가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이며, ‘충전소’와 ‘세차장’, ‘기타 차량서비스’ 순으로 소비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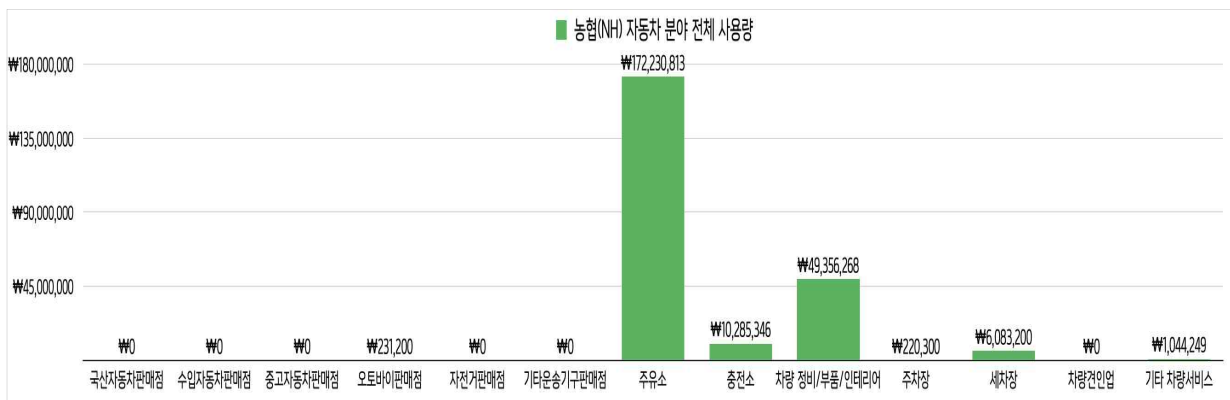
<그림 19> 전체 자동차 분야 사용량



<그림 20> 국민카드 자동차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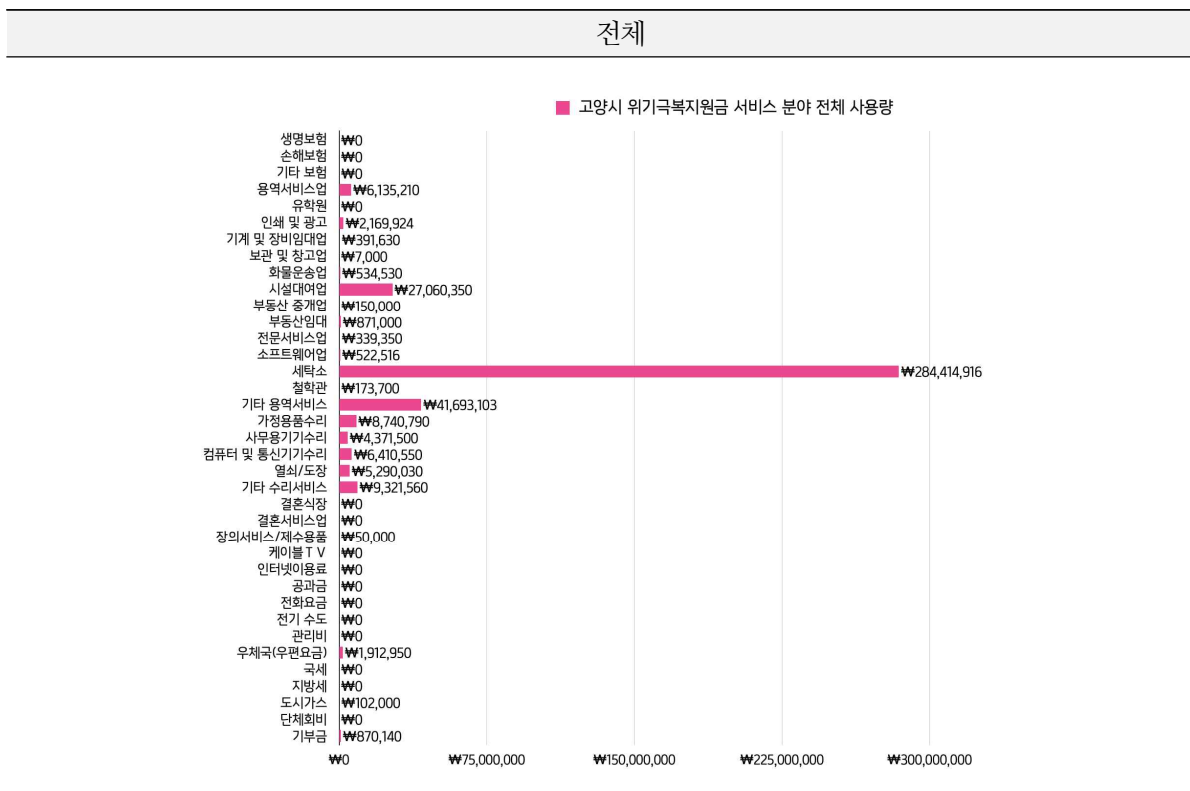
<그림 21> 농협카드 자동차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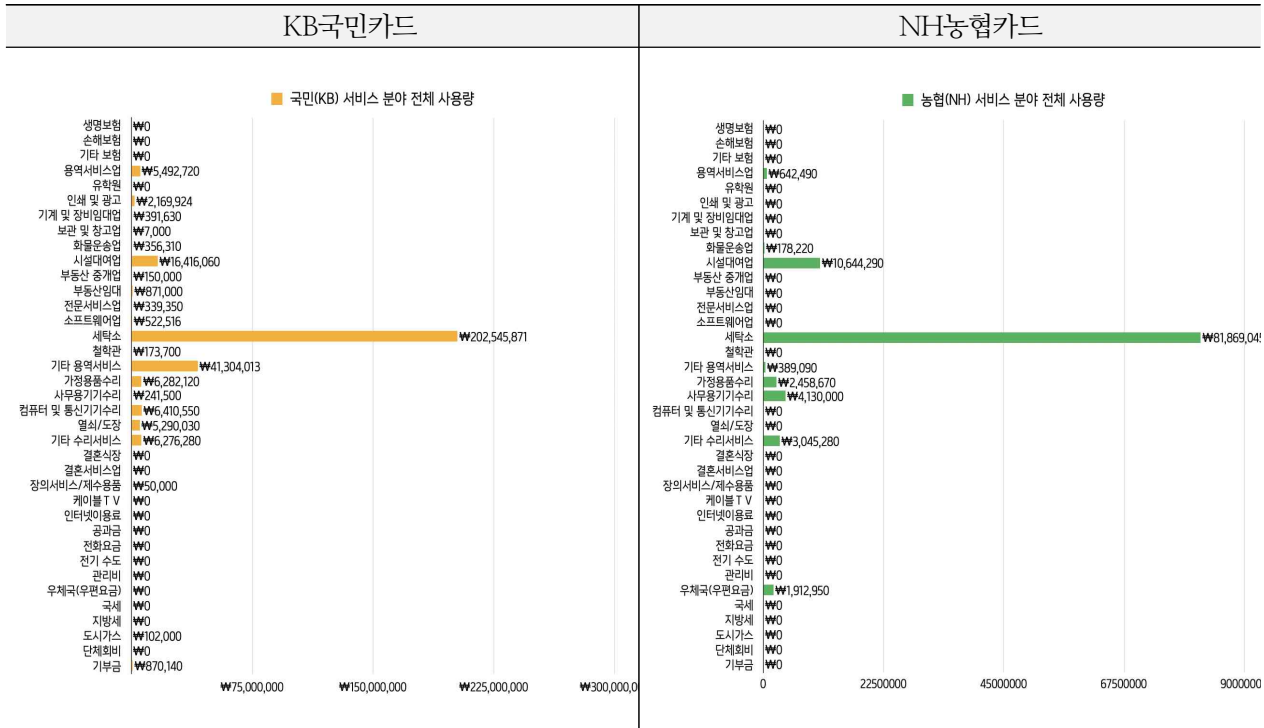


○ 서비스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세탁소에서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KB국민카드: ‘세탁소’ 소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타 용역서비스’이 다음 순으로 소비 발생을 보임
- NH농협카드: ‘세탁소’ 소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시설대여업’이 다음 순으로 소비 발생을 보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은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 대면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일상생활과 밀착된 세탁소 업종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또한 금액 자체가 5만 원인 점이 소비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사료함

<그림 22> 서비스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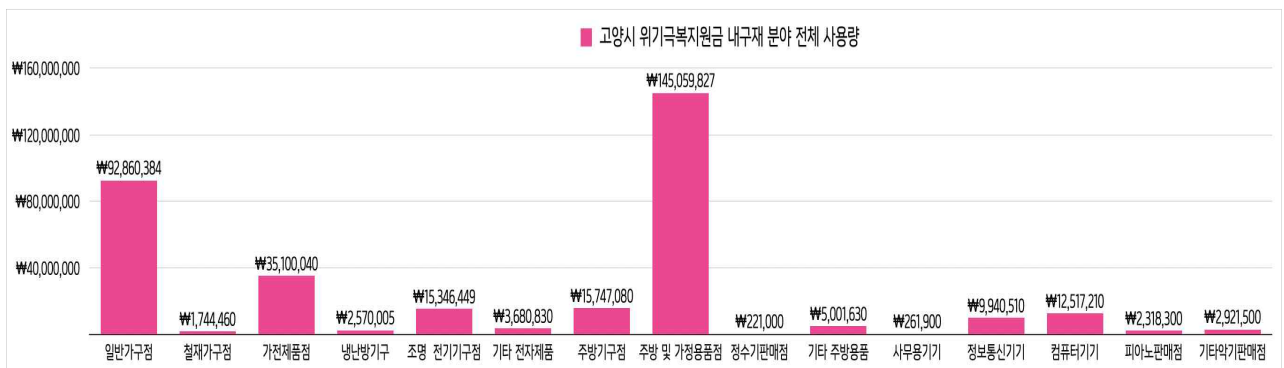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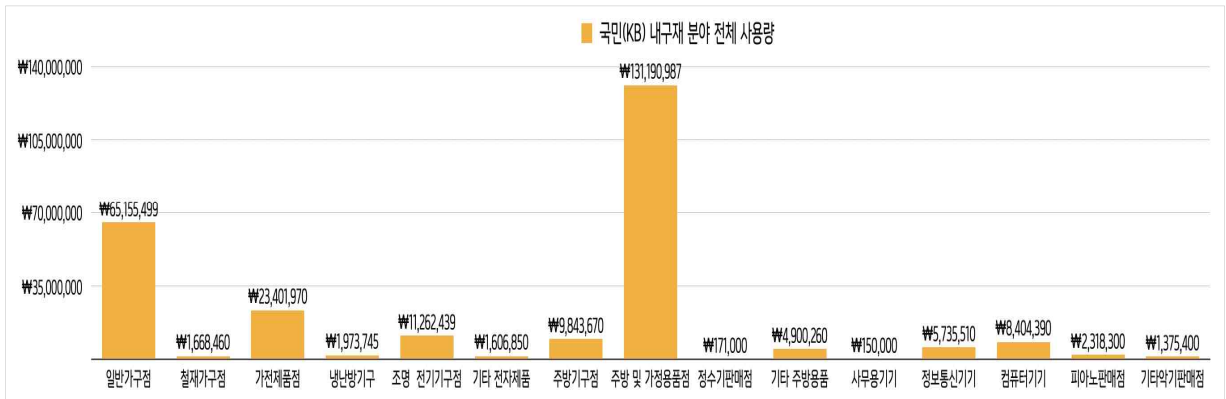
○ 내구재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주방 및 가구용품점’과 일반가구점에서의 소비가 가장 높음
- KB국민카드: ‘일반가구점’, ‘주방 및 가구용품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 순으로
- NH농협카드: ‘일반가구점’, ‘주방 및 가구용품점’, ‘가전제품점’, ‘주방기구점’,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소비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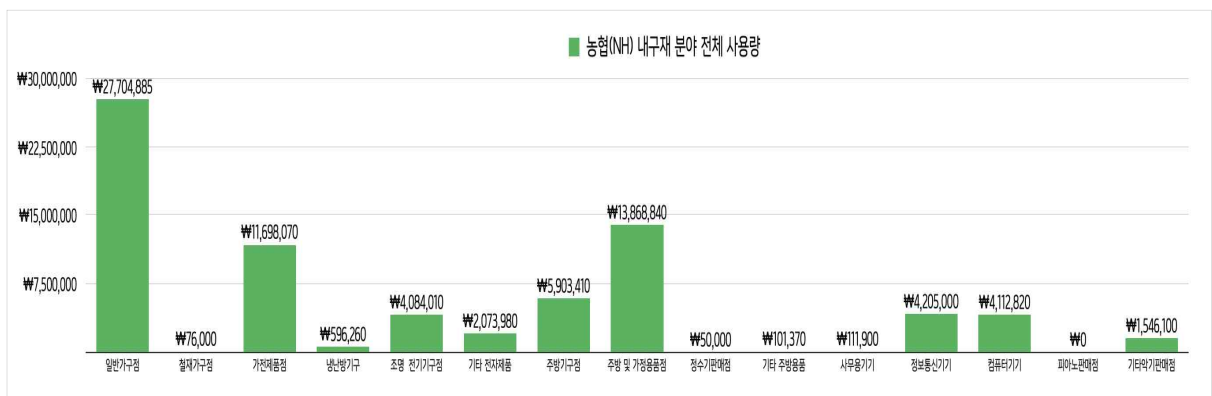
<그림 23> 전체 내구재 분야 사용량



<그림 24> 국민카드 내구재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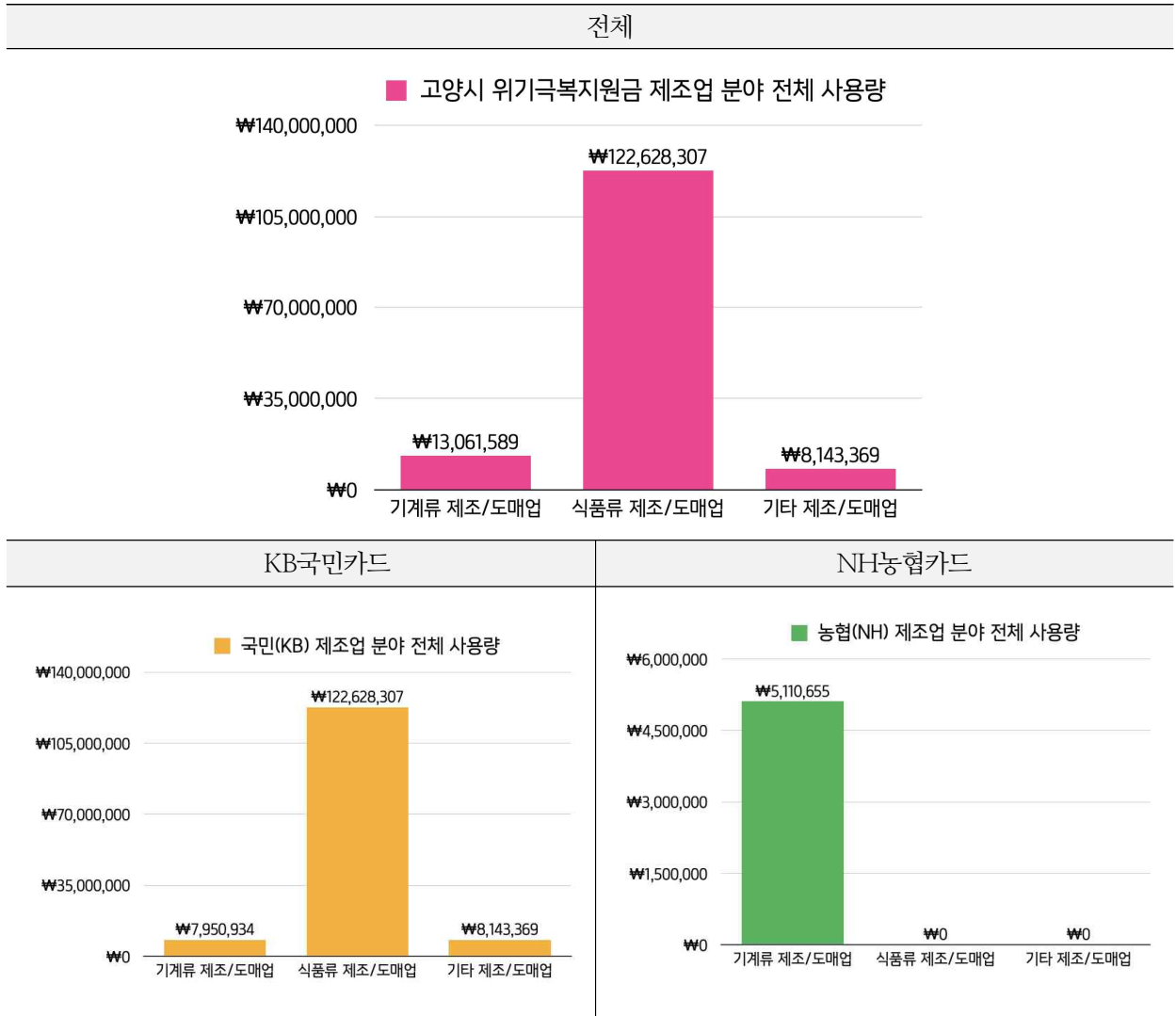
<그림 25> 농협카드 내구재 분야 사용량



○ 제조업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 가장 높게 소비 발생함
- KB국민카드: 분야는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분야는 '기타 제조/도매업'이며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은 '식품류 제조/도매업'에 편중되어 소비가 발생했음
- NH농협카드: '기계류 제조/도매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국민은행 카드와 달리 '식품류 제조/도매업'가 아닌 '기계류 제조/도매업'에 편중되어 사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조업 분야 소비에 있어서는 두 카드의 소비 패턴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6> 제조업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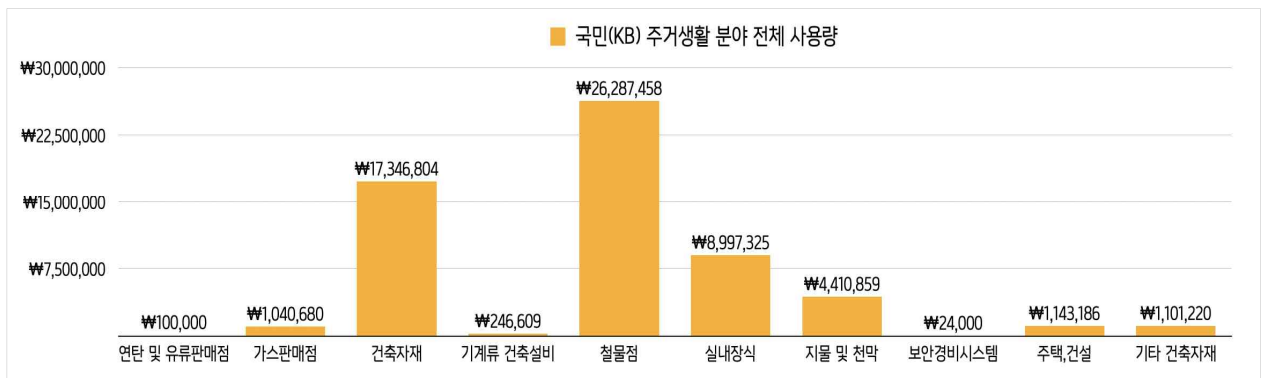
○ 주거생활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철물점’에서의 소비가 가장 높음
- KB국민카드: ‘철물점’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며, ‘건축자재’, ‘실내장식’, ‘지물 및 천막’, ‘주택, 건설’ 순으로 소비가 이루어짐
- NH농협카드: ‘기타 건축자재’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며 ‘실내장식’, ‘건축자재’, ‘연탄 및 유류판매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짐
- 주거생활 분야에서 두 카드 소비동향은 차이를 보임, 제공된 데이터의 성, 연령 등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없어 차이에 대한 검정은 시행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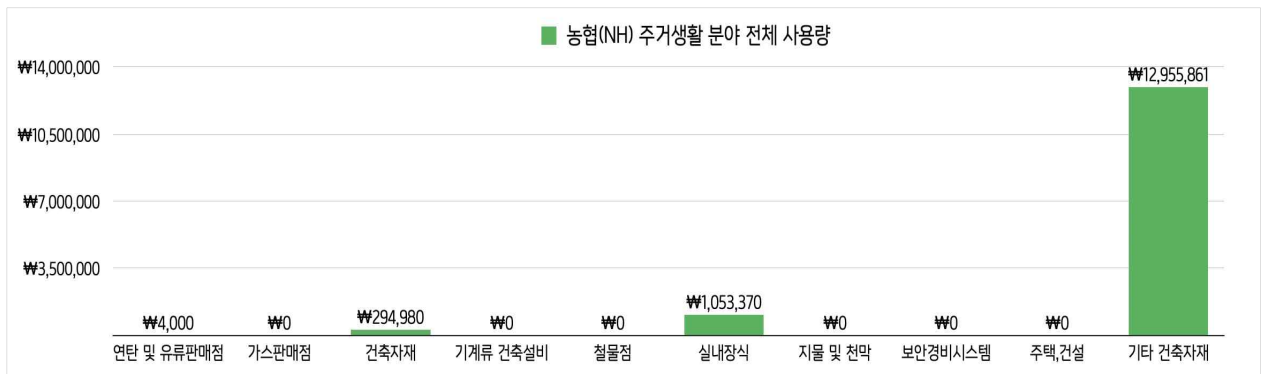
<그림 27> 전체 주거생활 분야 사용량



<그림 28> 국민카드 주거생활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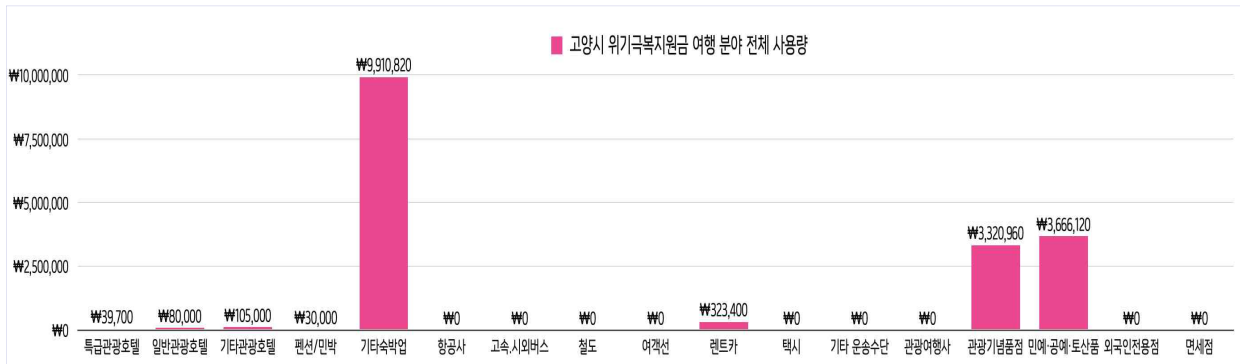
<그림 29> 농협카드 주거생활 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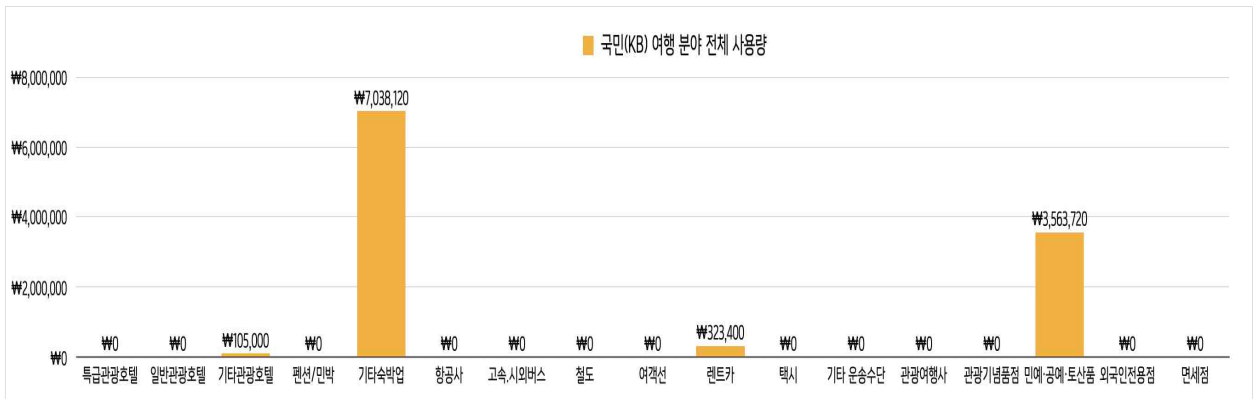
○ 여행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전체 소비를 보면 '기타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함
- KB국민카드: '기타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민예·공예·토산품', '렌터카', '기타관광호텔' 순으로 소비 발생함
- NH농협카드: '관광 기념품점', '기타숙박업', '민예·공예·토산품', '일반관광호텔', '특급관광호텔' 순으로 소비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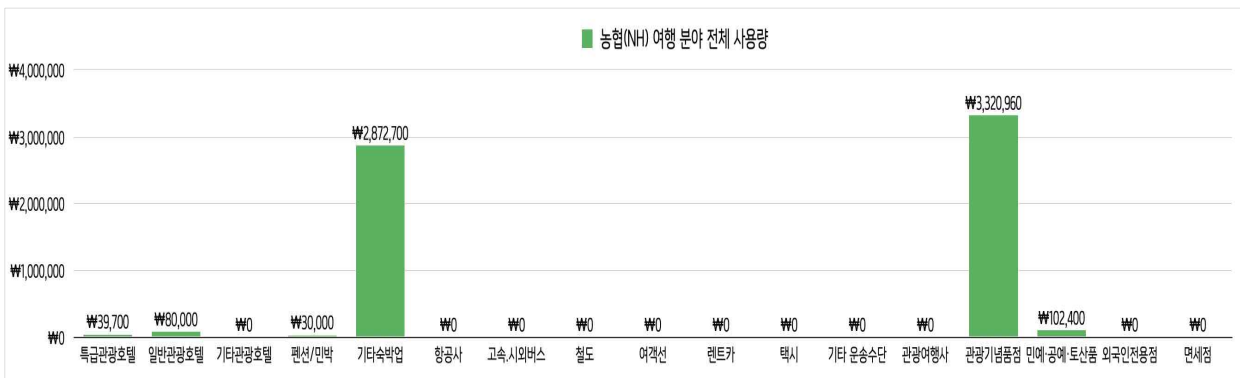
<그림 30> 전체 여행분야 사용량



<그림 31> 국민카드 여행분야 사용량



<그림 32> 농협카드 여행분야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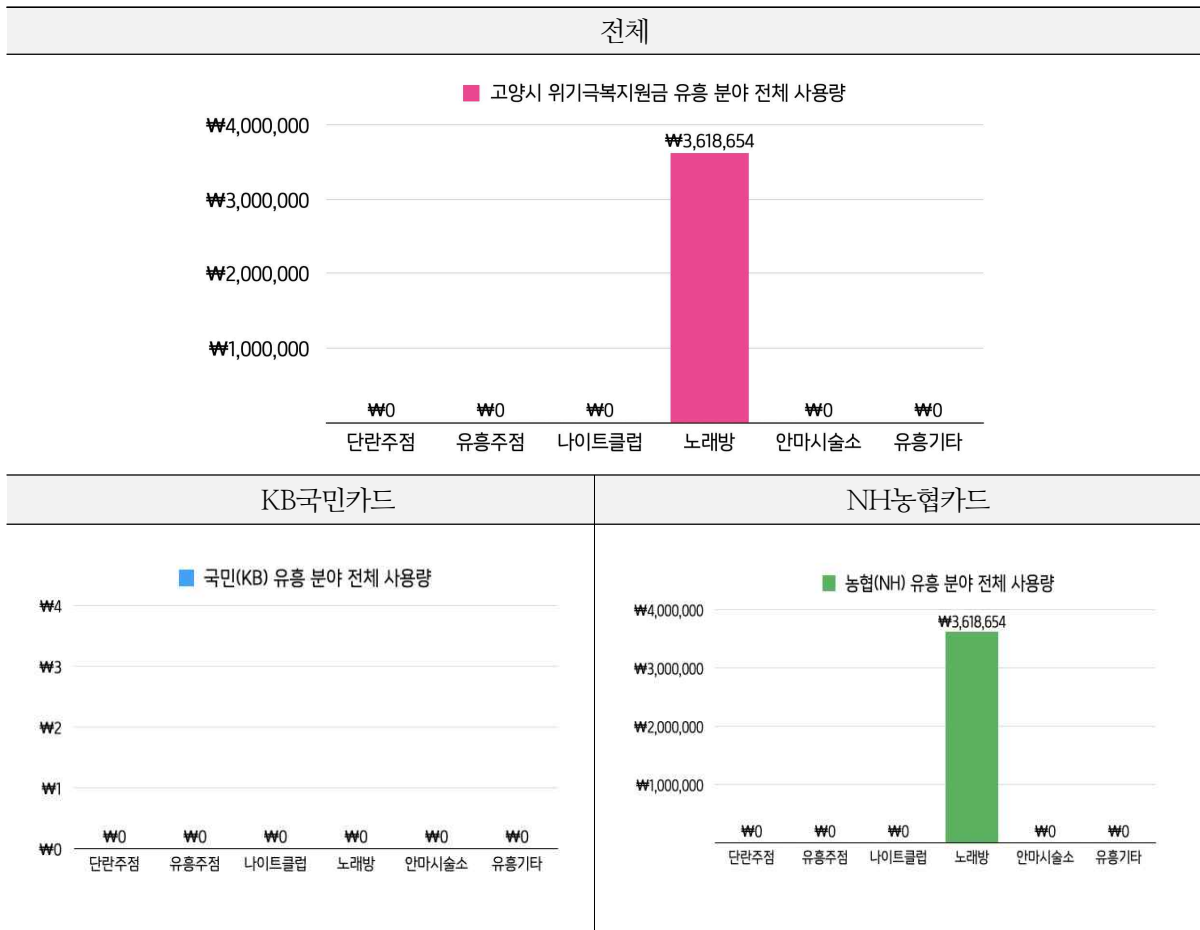


○ 유흥 분야 소분류 소비 동향

- ‘위기극복지원금’ 특성상 처음부터 ‘유흥’ 분야의 소비는 허용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노래방은 카드사 분류 체계에 따르면 유흥에 들어가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코드에 따르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소비자체는 발생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국민카드의 경우 소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카드사 분류체계상 유흥에 묶여 집계된 상황임. 반면 농협의 경우 소비가 발생되었지만 본래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집계되지 않고 카드사 분류체계인

- 유흥으로 분류되어 소비가 집계된 상황임
- KB국민카드: 소비 전혀 없음
 - NH농협카드: 소비가 가능한 노래방에서만 소비 발생함

<그림 33> 유통 분야 사용량



IV.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동향 분석

GYRI

□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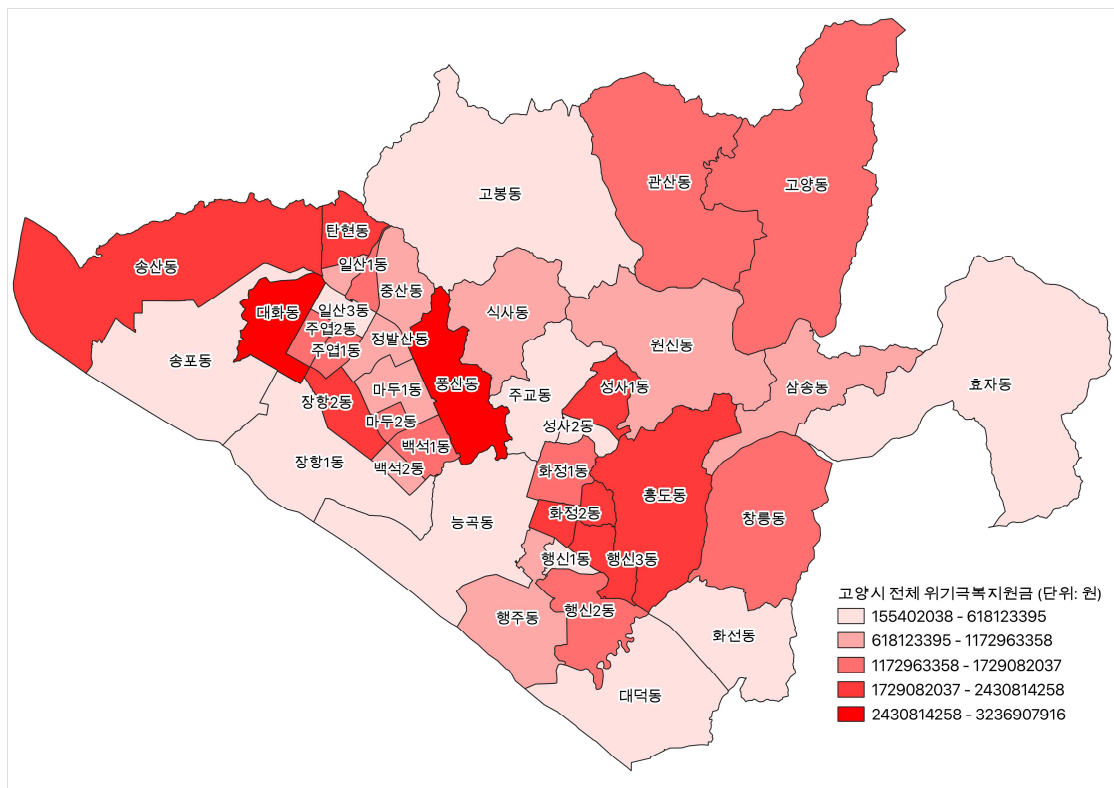
○ 구별 소비 동향

- 구별 소비동향을 보면 덕양구가 총 소비액 21,220,371,577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일산서구 14,016,219,504원, 일산동구 13,855,528,070원의 순을 보임

○ 행정동별 소비 동향

- 고양시 39개 행정동별 소비동향을 보면 일산서구 대화동 3,236,907,916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덕양구 화정2동 831,393,263원, 덕양구 성사1동 816,810,100원 순으로 소비를 보이고 있음

<그림 34>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사용량 지역별 분포



<표 1>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총액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총합	₩21,220,371,577	1
	주교동	₩330,506,340	36
	월신동	₩1,028,231,480	23
	홍도동	₩1,922,933,112	9
	성사 1동	₩2,430,814,258	3
	성사 2동	₩265,927,658	37
	효자동	₩155,402,038	39
	삼송동	₩816,785,915	27
	창릉동	₩1,556,083,408	13
	고양동	₩1,369,182,368	16
	관산동	₩1,621,718,205	11
	능곡동	₩496,865,537	34
	화정 1동	₩1,565,223,953	12
	화정 2동	₩2,230,394,002	4
	행주동	₩881,673,680	25
	행신 1동	₩540,163,074	32
	행신 2동	₩1,406,879,973	15
	행신 3동	₩1,949,054,452	7
	화전동	₩479,432,240	35
	대덕동	₩173,099,884	38
일산동구	총합	₩13,855,528,070	3
	식사동	₩1,042,737,521	22
	중산동	₩1,138,385,416	21
	정발산동	₩1,172,963,358	20
	풍산동	₩3,013,597,679	2
	백석 1동	₩1,299,767,132	19
	백석 2동	₩915,963,890	24
	마두 1동	₩831,542,322	26
	마두 2동	₩1,358,970,778	17
	장항 1동	₩546,036,681	31
	장항 2동	₩1,936,007,626	8
	고봉동	₩599,555,667	30
일산서구	총합	₩14,016,219,504	2
	일산 1동	₩746,116,898	28
	일산 2동	₩1,500,745,693	14
	일산 3동	₩535,654,663	33
	탄현동	₩2,101,903,598	6
	주엽 1동	₩1,345,489,346	18
	주엽 2동	₩1,729,082,037	10
	대화동	₩3,236,907,916	1
	송포동	₩618,123,395	29
송산동	₩2,202,195,958	5	

□ 국민카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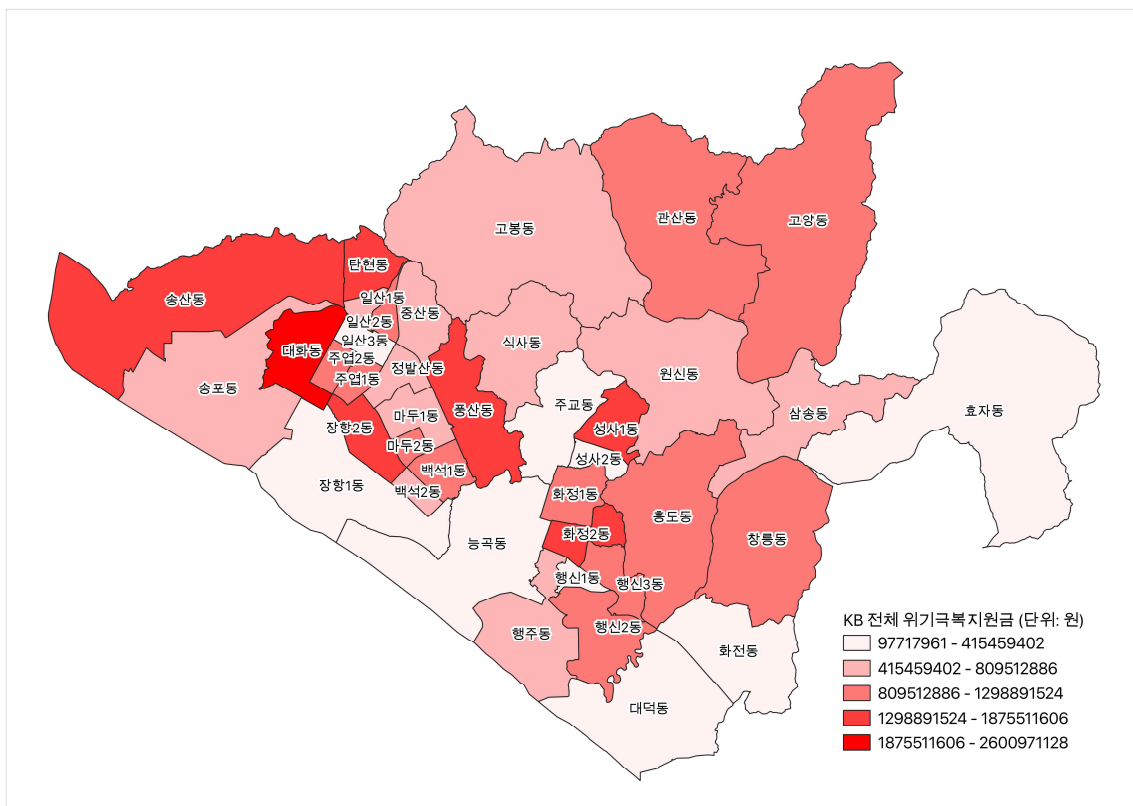
○ 구별 소비 동향

- 구별 소비동향을 보면 덕양구가 총 소비액 14,142,428,591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일산서구 10,913,207,248원, 일산동구 9,479,098,091원의 순을 보임

○ 행정동별 소비 동향

- 고양시 39개 행정동별 소비동향을 보면 일산서구 대화동 2,600,971,128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일산동구 풍산동 1,875,511,606원, 일산서구 송산동 1,719,970,420원 순으로 소비를 보이고 있음

<그림 35> 국민카드 위기극복지원금 사용량 지역별 분포



<표 2> 국민카드 위기극복지원금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전체	₩14,142,428,591	1
	주교동	₩225,563,719	36
	월신동	₩694,411,049	23
	홍도동	₩1,298,891,524	8
	성사 1동	₩1,614,004,158	5
	성사 2동	₩178,438,337	37
	효자동	₩104,205,835	38
	삼송동	₩568,313,901	27
	창릉동	₩1,115,683,157	13
	고양동	₩890,825,291	19
	관산동	₩1,209,911,078	11
	능곡동	₩334,781,053	35
	화정 1동	₩1,004,222,276	15
	화정 2동	₩1,399,000,739	7
	행주동	₩604,708,254	25
	행신 1동	₩345,712,577	32
	행신 2동	₩894,010,856	18
	행신 3동	₩1,218,366,454	10
	화전동	₩343,660,372	33
	대덕동	₩97,717,961	39
일산동구	전체	₩9,479,098,091	3
	식사동	₩612,951,863	24
	중산동	₩697,591,853	21
	정발산동	₩809,512,886	20
	풍산동	₩1,875,511,606	2
	백석 1동	₩906,055,428	17
	백석 2동	₩697,280,065	22
	마두 1동	₩525,398,352	29
	마두 2동	₩950,850,873	16
	장항 1동	₩415,459,402	31
	장항 2동	₩1,478,487,895	6
	고봉동	₩509,997,868	30
	일산서구	전체	₩10,913,207,248
일산 1동		₩584,675,758	26
일산 2동		₩1,173,756,925	12
일산 3동		₩338,594,065	34
탄현동		₩1,640,543,308	4
주엽 1동		₩1,066,363,590	14
주엽 2동		₩1,258,038,516	9
대화동		₩2,600,971,128	1
송포동		₩530,293,538	28
송산동		₩1,719,970,420	3

□ **농협카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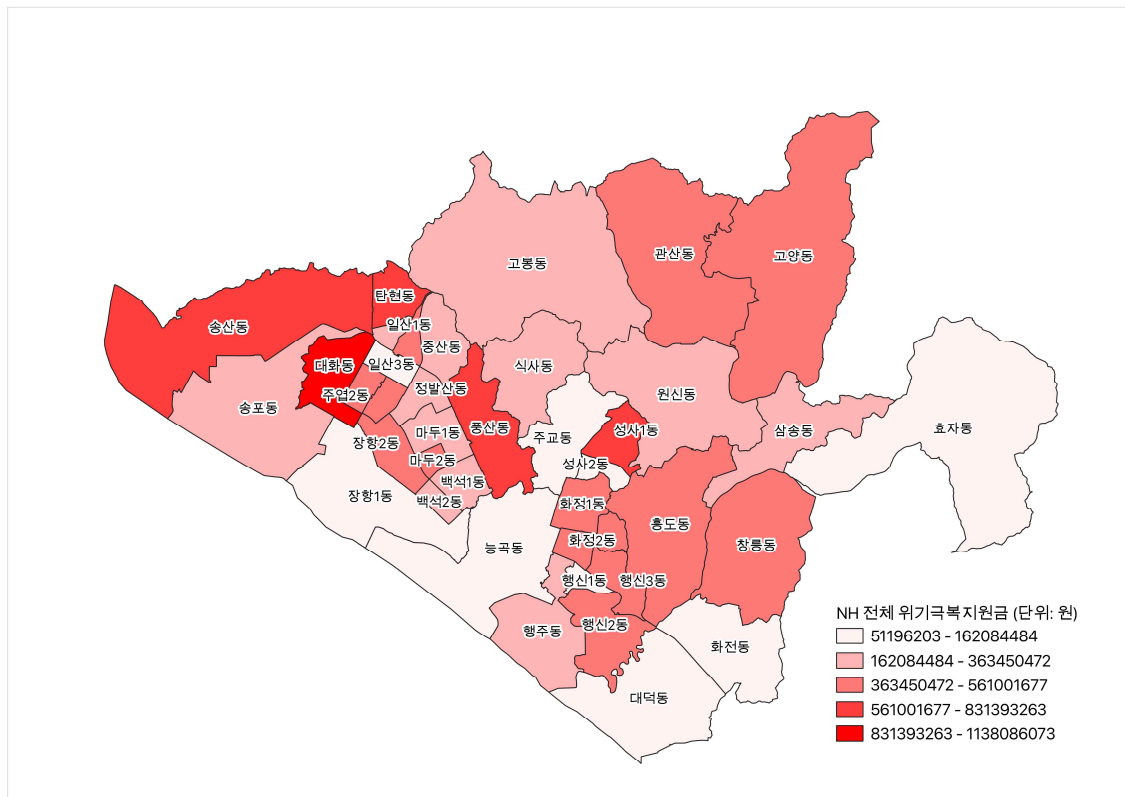
○ 구별 소비 동향

- 구별 소비동향을 보면 덕양구가 총 소비액 7,077,942,986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일산동구 4,376,429,979원, 일산서구 3,103,012,256원의 순을 보임

○ 행정동별 소비 동향

- 고양시 39개 행정동별 소비동향을 보면 일산 동구 풍산동이 1,138,086,073원으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이며, 덕양구 화정 2동 831,393,263원, 덕양구 성사 1동 816,810,100원의 소비를 보임

<그림 36> 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사용량 지역별 분포



<표 3> 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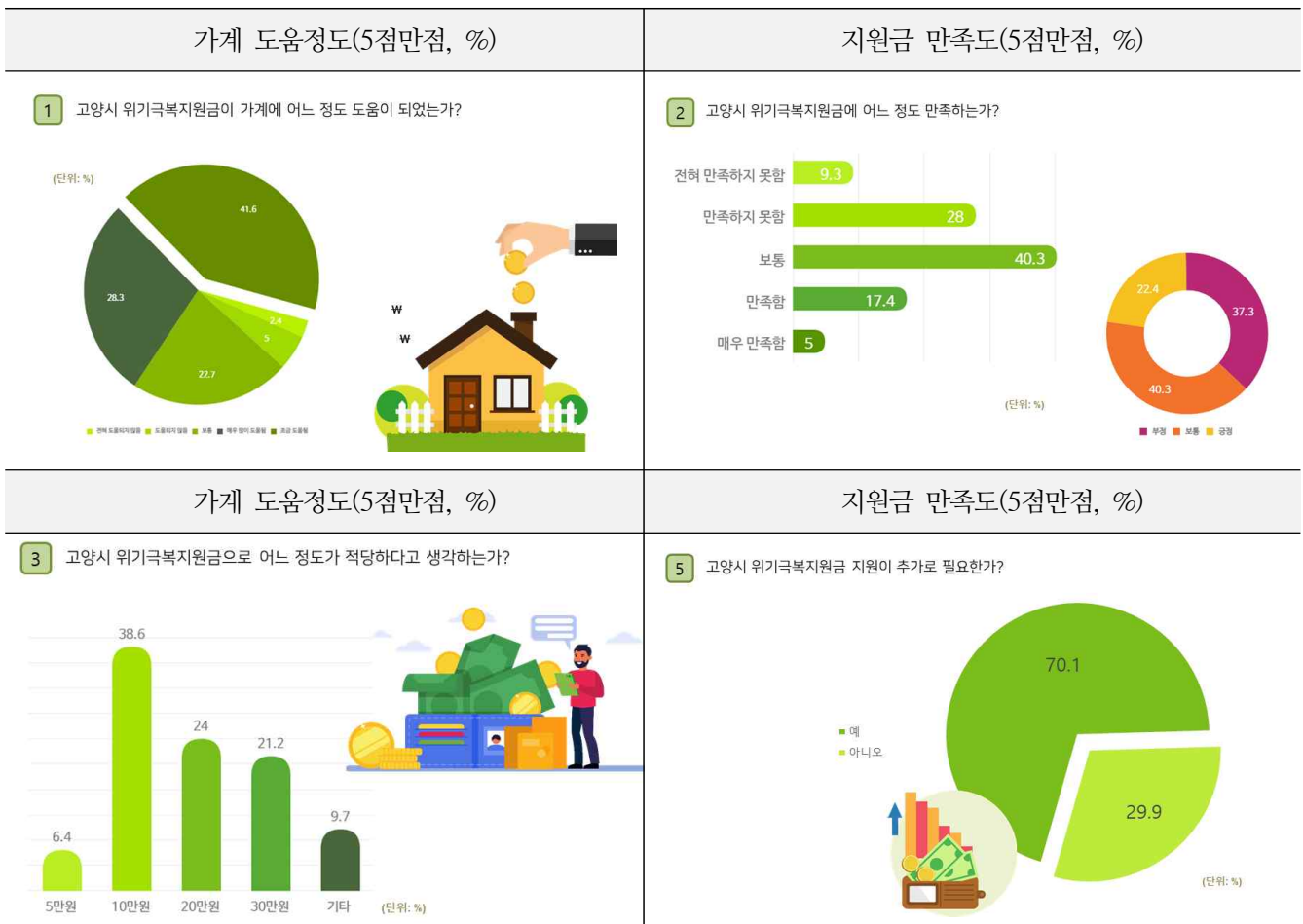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총합	₩7,077,942,986	1
	주교동	₩104,942,621	34
	월신동	₩333,820,431	21
	홍도동	₩624,041,588	6
	성사 1동	₩816,810,100	3
	성사 2동	₩87,489,321	37
	효자동	₩51,196,203	39
	삼송동	₩248,472,014	26
	창릉동	₩440,400,251	15
	고양동	₩478,357,077	10
	관산동	₩411,807,127	17
	능곡동	₩162,084,484	30
	화정 1동	₩561,001,677	7
	화정 2동	₩831,393,263	2
	행주동	₩276,965,426	25
	행신 1동	₩194,450,497	29
	행신 2동	₩512,869,117	8
	행신 3동	₩730,687,998	4
	화전동	₩135,771,868	32
	대덕동	₩75,381,923	38
일산동구	총합	₩4,376,429,979	2
	식사동	₩429,785,658	16
	중산동	₩440,793,563	14
	정발산동	₩363,450,472	20
	풍산동	₩1,138,086,073	1
	백석 1동	₩393,711,704	19
	백석 2동	₩218,683,825	27
	마두 1동	₩306,143,970	23
	마두 2동	₩408,119,905	18
	장항 1동	₩130,577,279	33
	장항 2동	₩457,519,731	13
고봉동	₩89,557,799	35	
일산서구	총합	₩3,103,012,256	3
	일산 1동	₩161,441,140	31
	일산 2동	₩326,988,768	22
	일산 3동	₩197,060,598	28
	탄현동	₩461,360,290	12
	주엽 1동	₩279,125,756	24
	주엽 2동	₩471,043,521	11
	대화동	₩635,936,788	5
	송포동	₩87,829,857	36
	송산동	₩482,225,538	9

V.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GYRI

- 위기극복지원금의 가계 도움여부, 금액 만족도, 추가지원여부 및 적정금액 정도
 - 가계 도움정도에 대해서 69.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만족(만족+매우만족)의 비율이 22.4%로 불만족(전혀 만족 못함 +만족 못함) 비율 12.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음
 - 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는 70.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추가지원금에 대한 적정금액으로는 10만원이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만원이 24% 순을 차지함

<그림 37> 시민의식 조사 결과



- 지원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
 - 응답자의 52.2%가 지원금을 통한 소비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 같다고 응답함

- 지원금 신청과정 만족도 및 신청방법, 지원형태
- 신청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25.8%), ‘다소 불편’(23.1%)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임
 - 신청형태의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모바일) 신청’(30.4%), ‘오프라인(직접) 신청’(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불카드(기존 방법과 동일)’(38.9%), ‘현물 지급’(7.5%) 등의 순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지출 감소 분야 및 추가지원금을 통한 지출예정 분야
 - ‘여행/숙박/교통’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식/유흥’(14.6%), ‘스포츠/문화/레저/관련용품’(12.2%), ‘의류/잡화’(11.9%) 등의 순을 보임
 - ‘음식료품’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약국/의료’(12.5%), ‘의류/잡화’(10.2%), ‘요식/유흥’(9.1%) 등의 순임

V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증감 정도

GYRI

□ 분석 개요

- 목적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고양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경제 위축 실태 및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고양시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분석자료 및 대상의 기간
 - 고양시 전 지역 ○○카드 가맹점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 2019년 1월 1일 ~ 2019년 3월 30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15일: 2020년 1월 20일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을 기점으로 이후 주차별 분석(월요일~일요일), 2019년 분석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분석업종
 - 분석대상 카드 분류 업종 사용: 지역 소비와 무관한 자료는 제외, 주요 제외 업종 : 보험, 통신, 자동이체, 제약, 세금, 홈쇼핑, 여행사, 온라인 등

□ 분석 결과

<표 4> 대분류 및 중분류 업종의 소비 증감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19_8W	20_8W	증감	증감율
가전/가구	가전/가구	79	70	△ 9.6	△ 12%
가정생활/서비스	인테리어	17	17	△ 0.6	△ 3%
가정생활/서비스	서비스	20	18	△ 2.2	△ 11%
교육/학원	학원	63	58	△ 4.7	△ 8%
교육/학원	교육용품	10	8	△ 1.9	△ 20%
교육/학원	유아교육	20	6	△ 13.9	△ 68%
미용	화장품	9	8	△ 1.9	△ 20%
미용	미용서비스	30	23	△ 6.9	△ 23%
스포츠/문화/레저	스포츠/문화/레저용품	31	26	△ 4.8	△ 16%
스포츠/문화/레저	스포츠/문화/레저	52	41	△ 10.4	△ 20%
여행/교통	숙박	6	3	△ 2.9	△ 47%
여행/교통	여행	1	0	△ 0.3	△ 53%
요식/유흥	한식	182	142	△ 40.0	△ 22%
요식/유흥	기타요식	107	88	△ 19.0	△ 18%
요식/유흥	일식/중식/양식	42	32	△ 9.9	△ 24%
요식/유흥	제과/커피/패스트푸드	32	31	△ 1.6	△ 5%
요식/유흥	유흥	15	10	△ 5.2	△ 34%
유통	할인점/슈퍼마켓	292	278	△ 13.5	△ 5%
유통	편의점	60	62	+1.8	+3%
유통	백화점	85	44	△ 40.3	△ 48%
유통	기타유통	39	27	△ 11.9	△ 31%
음/식료품	음/식료품	53	58	+5.7	+11%
의료	병원	156	129	△ 26.8	△ 17%
의료	기타의료	4	24	+20.1	+508%
의료	약국	28	33	+4.4	+16%
자동차	자동차서비스/용품	43	37	△ 5.6	△ 13%
자동차	자동차판매	11	16	+4.8	+43%
주유	주유	231	197	△ 33.4	△ 14%
패션/잡화	의복/의류	18	12	△ 6.2	△ 34%
패션/잡화	패션/잡화	14	11	△ 3.7	△ 26%

- 대다수의 업종에서 매출액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편의점, 의료 및 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음. 본 결과와 앞서 분석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의 경우 식생활 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분야가 한식임. 일반 신용카드 분석 결과 요식업에서 한식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 감소 피해가 큰 업종임. 미장원, 화장품, 의류업종의

경우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업종에서는 소비가 높게 나타난 업종임. 그러나 편의점이나 약국의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업종임에도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 또한 높게 나타난 업종으로 일부 업종은 소비가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음

Ⅶ. 시사점 및 정책제언

GYRI

□ 시사점

- 분석결과 위기극복지원금의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업종 중에 41%가 식생활, 38%가 유통분야에서 사용되어 총 79%가 두 분야에서 소비된 상황임. 의료/미용업 9%, 의생활3%, 레포츠/문화/취미 3%, 교육 2%, 자동차(주유) 2%, 서비스 1%, 내구재 1%의 소비패턴을 보임
 - 식생활의 경우 ‘한식’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일반음식점’, ‘농수축산물점’,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음
 - 일반 신용카드 대상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이후의 소비증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매출액 감소를 보인 분야는 식생활이며, 세분류로 보면 한식업종이 해당하였으나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이 가장 높은 업종 또한 한식으로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 증감의 효과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유통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의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금액자체가 5만원으로 크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생활과 식음료 구매에서 소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분야별 세부 사용처를 보면 약국, 안경점, 세탁소, 철물점 등에서 타 업종에 비해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비가 높은 세부 업종의 유형을 보면 일상생활과 밀착된 업종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5만원의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에서 1-2회 지출로 소비가 이루어졌음 짐작해 볼 수 있음(국민은행 건별 사용액 기준)
- 앞 절의 일반 신용카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식, 미용, 화장품, 의류 업종의 경우 20% 이상 매출액 감소를 보인 업종인 반면,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량은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소비된 업종으로 시민들에게는 소비지출의 혜택을 주었으며 본 업종의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증가의 혜택을 주어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부 특정화 할 수 있음

- 또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을 통해 소비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제 소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을 실생활과 밀접한 식생활, 유통, 의료, 의류 등의 업종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1차 지원금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희망업종에서의 소비가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본 분석은 고양시 차원의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지급에 대한 기준 및 비교 대상의 잣대가 될 수 있음. 또한 경기도 및 정부 지원금 소비동향과의 비교, 타 데이터(타 카드 및 서베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 차원의 재난소득지원금의 실질적인 사용처와 향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둠

□ 정책제언

-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연령별 맞춤 서비스
 - 정부 및 광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가 필요함.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방식과 일원화하여 기간을 정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음.
 - 그러나 고양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의 경우 오프라인 방식의 신청절차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며, 노년층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지급형태의 다양화
 - 고양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연령층에 따라서도 지급형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젊은 계층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선호하며, 연령이 높은 경우는 기존형태와 같은 선불카드를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함
 - 고양페이 연계 지원 검토 필요
- 지원 금액 상향 필요
 -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임
 - 화성시 20만원, 성남시 10만원, 용인시 10만원 금액에 비해 절반정도의 금액에 불과함.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들의 대다수가 10만원의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추후 지급 계획이 있다면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민의 70% 이상이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통한 가계경제의 도움정도가 높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 분석 및 시민의견 수렴 필요

- 단일 유형의 데이터 분석이 아닌 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파악이 필요
- 데이터는 현황을 통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시민 체감 정책의 시행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함. 따라서 데이터를 통한 현황분석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중요함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30호

발행일 2021.05.31.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